

Elim 엘림중국선교센터

엘림중국선교센터

‘위드코로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상황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센터도 저를 포함한 유학생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에 이전 보다는 자유롭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5명의 학생들과 매주 수요일에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주님을 모르거나,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초대해서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코로나 상황인데, 안전하게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림중화선교회’ 장학금은 9월초에 보냈으며, 중국현지 개척교회 후원금은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이 어려워져서 걱정했는데, 어플을 통해서 쉽고 편한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중국남부성경신학교(CSBC), 청공대학생센터



중국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개강이 늦어져 9월에 개강하였습니다.

현재 리송화, 덩싼바이 학생은 리수어성경학교 졸업후에 예정대로 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현지 교회 상황이 전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안일(농사)을 도우며 주일예배와 평일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양푸메이 학생은 2학년이 되었고, 사천신학교에 진학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공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쌍웬화 학생과 이즈렌 학생은 운남신학교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쌍웬화 학생은 신학교에서 설교를 했다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학생들이 잘 적응하여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공대학생센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않아 전도도 어렵고, 모임을 지속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성경신학원(CBC)

중국성경신학원(CBC)은 지난 9월 8일 개강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소요리문답1, 구원이란 무엇인가?, 성경개관, 신앙생활의 이해’ 네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벌써 이번 학기 전반기 6주강의는 끝났습니다. 전반기 수업을 마치고 10월 23일 토요일, 중국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저희 엘림선교센터에 모여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6주의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중국현지 교회

중국의 코로나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회들의 모임이 다시 통제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기한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자유로운 상황이었지만, 현재 시골에 있는 교회들도 강제로 모임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루 빨리 모임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엘림중국선교센터에서 중국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선교중국으로 나아갈 일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2. 중국성경신학원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가 양성되길 소망합니다.
3. 중국남부성경신학교의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길 소망합니다.
4. 청공대학생 센터의 대학생 성경공부 모임과 주일예배 모임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5. 중국현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6. 예현(8세)이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지현(6세)이는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길 소망합니다.